

“올해 이순신 수군문화제 참여형 축제로”

목포시 발전 계획 최종 용역보고
두번째 축제 인지도 높여야
다양한 콘텐츠·프로그램 제안
고하도 통제영 부각 정체성 확보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 격상

목포시가 지난해 4월 첫 개최한 ‘이순신 수군문화제’를 지역특화 문화관광 축제로 격상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목포시는 최근 이순신 수군문화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수군문화제가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수군 호국 문화를 재현해 지역 정체성을 함양하고, 목포 수군의 활약상을 재조명해 지역 애호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용역팀은 목포만의 자원을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의 집중화와 시민참여 범위 확대,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 관광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관광단지 연계성 미흡,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세미나 활동 저조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용역보고회 자리에서는 수군문화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나왔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목포 수군퍼레이드와 주제 공연, 해상 퍼레이드 등이 제시됐으며 주제별 프로그램으로는 노적봉 군



이순신 수군 문화제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와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열린 수군문화제의 수군 퍼레이드 모습. /목포=임영춘 기자 lyc@

람이 쌓기 퍼포먼스와 목포해양유물 전시관 이순신 해저 유물 전시, 학술대회, 수군 북장 전시회 등이 제안됐다.

특히 고하도 통제영 수군 재건식과 점고식, 유달산 봉수 시연 및 오프 개포 발사, 수군 승선부 공연놀이, 조선 수군 수조 행렬 전개, 조선 삼도 수군 속배식 등 장기적 콘텐츠 구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군문화제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군 행사를 상설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학생들에게 놀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체험·공유할 수 있도록 목포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역팀은 수군문화제 개최시기와 관련된 유달산에 봄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맞춰 오는 4월 7일과 8일 이틀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박용목 목포시장은 “통영 한산도 축제는 ‘한산대첩’이 강조되고 여수 진남진 거북선 축제는 ‘거북선’이 핵심인 반면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제는 ‘고하도 통제영’을 부각시켜 정체성을 확보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제영을 거점으로 목포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3단계(2018년~2020년)로 나눠 지속 가능한 상설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남진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산하 1500명 전 직원이 한 달에 한번 가족을 동반한 야시장 방문하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목포시는 지난 2015년 말 ▲전통시장 차별화 ▲야시장 고품격화 ▲야시장 관광 상품화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내걸고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목포 자유시장을 남진야시장을 개장했다. 개장 당시 이동 판매대가 30개에 달했으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방문객 수 감소와 매출 감소까지 겹쳐 10개 안팎으로 줄어들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목포시 농상과 관계자는 “오는 8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남진야시장을 확대 운영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팜플릿,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진 야시장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1월 말 기준) 200회를 운영해 약 1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침체에 빠진 남진 야시장이 올해 들어 매대 운영이 17대까지 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활기 찾는 남진야시장 주 3회 개장 확대

새 레시피 25종 개발 박차

목포 남진야시장이 운영하는 매대가 17대까지 늘어나는 등 침체를 벗고 점차 활기를 찾고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매주 금요일 2회 운영해오던 야시장을 주 3회(금·토·일)로 확대하고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 공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야시장 활성화 시책을 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상인회는 기존 메뉴가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25종의 레시피를 개발, 시식회를 통해 최종 메뉴를 선정할 뒤 현재 비어있는 이동 판매대(13대) 운영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해 30대 모두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1층 카페형 매장과 2층 옥상 야외쉼터 등 복합 문화공간 설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제철 해산물을 소포장해 판매하는 ‘자유 시장 PB 상품’ 개발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남진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산하 1500명 전 직원이 한 달에 한번 가족을 동반한 야시장 방문하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목포시는 지난 2015년 말 ▲전통시장 차별화 ▲야시장 고품격화 ▲야시장 관광 상품화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내걸고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목포 자유시장을 남진야시장을 개장했다. 개장 당시 이동 판매대가 30개에 달했으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방문객 수 감소와 매출 감소까지 겹쳐 10개 안팎으로 줄어들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목포시 농상과 관계자는 “오는 8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남진야시장을 확대 운영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팜플릿,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진 야시장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1월 말 기준) 200회를 운영해 약 1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연희네 슈퍼’ 설 연휴 새 관광명소 부상

하루 500~800명 찾아 북적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서산동 연희네 슈퍼가 설 연휴 대박을 터뜨리면서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앞서 목포시가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희네 슈퍼를 촬영 당시 모습으로 재현한 이후, 설 연휴 기간동안 하루에 500~800명까지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좁은 골목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시는 기대 이상의 흥행에 전담 관광 해설사를 배치하고 연휴에도 관광과 직원들이 매일 상주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 한적한 골목에 생기가 들자 마을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 연희네 슈퍼 인근에 공가로 남아있던 백양제택소를 리모델링하고, 연희네 슈퍼 주변에 ‘1987’에서 촬영된 택시(자동차 스텔라)를 전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50년 동안 영업했던 백양제택소는 오래전 사용했던 세탁기계와 1980년대 의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향수를 자아낸다. 특히 연희네 슈퍼 내부에는 1970~80년대 알사탕, 과배기과자·감·생과자 등이 전시 판매(무인)되고, 외부에는 1980년대 문방구 앞에서 어린이들이 즐겼던 게임기가 설치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게다가 연희네 슈퍼 뒤편에는 일제 강점기 말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일제가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파 놓은 인공 동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리모델링하고, 연희네 슈퍼 주변에 ‘1987’에서 촬영된 택시(자동차 스텔라)를 전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50년 동안 영업했던 백양제택소는 오래전 사용했던 세탁기계와 1980년대 의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향수를 자아낸다. 특히 연희네 슈퍼 내부에는 1970~80년대 알사탕, 과배기과자·감·생과자 등이 전시 판매(무인)되고, 외부에는 1980년대 문방구 앞에서 어린이들이 즐겼던 게임기가 설치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게다가 연희네 슈퍼 뒤편에는 일제 강점기 말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일제가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파 놓은 인공 동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설 연휴를 맞아 영화 1987 촬영지인 연희네 슈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원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고 이색적인 관광콘텐츠를 보완해 1000만 관광객 방문의 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다음달 착공

534억 투입 2019년 완공

서남해안권 생물자원을 수집·연구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다음달 착공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2016년 건립 부지가 남해에서 고하도로 변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애초 총사업비 474억원에서 지난해 60억원 증액 534억원으로 확정된데 이어 지난 1일자로 실시 설계인가가 고시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19년말 완공을 목표로 9만4116㎡ 부지에 전시·연구·수장·교육동 등을 갖춘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1만721㎡) 규모로 건설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도서·연안 생물자원조사와 호남권 및 다도해 생물자원 수집·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연구사를 포함한 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관련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해상케이블카와 목화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H.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